

하루를 시작하며



김 동 현 문학평론가

지방선거에서 현역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조직과 예산을 가졌으니 언론 노출도, 성과 홍보도 수월하다. 제주도 역대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지지율이 낮거나 여러 정치적 이유로 불출마를 선언한 경우다. 2010년 김태환 지사와 2022년 원희룡 지사의 불출마가 대표적이다. 현직이 출마하지 않는 경우, 선거 구도는 요동쳤다. 오는 6월 있을 지방선거 구도도 요동치고 있다. 현직 도지사에게 현역 국회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내란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

오영훈 지사, 차 탔 말고 운전 습관부터 바꿔야

는 국민의힘의 상황으로는 지방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하다. 2022년 지방선거와 비슷하지만 조건은 사뭇 다르다. 2022년 지방선거는 원희룡 지사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치러졌다.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현직 지사의 재선은 2002년, 2006년, 2018년 선거 모두 세 차례다. 현직이 출마했지만 낙선한 경우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뿐이다. 1998년 선거에서는 공천에서 배제된 현직 신구범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역대 선거를 보더라도 현직 지사의 재선 성공률은 높았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이른바 반오(吳) 정서가 근저에 깔려있다. 오영훈 지사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 당내 평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오 지사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평가의 밑바닥에는 현역 지사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한다는 장담도 힘들다. 게다가 오 지사는 20%의 핸디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결선 투표까지 가야 하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겠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다. 역대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지사가 이렇게 거센 도전을 받은 경우는 없다. 광역단체장 하위 20% 평가를 받은 직후 오 지사는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의 입장에서 당내 평가를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이런 반응은 아직도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역단체장 평가는 제주도

행정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 지사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평가를 자동차에 대한 평가로 치환하는 것은 심각한 인식의 오류다. 고급 승용차인지, 경차인지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은 운전자의 잘못이지, 자동차의 잘못이 아니다.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른다. 하지만 잘못된 상황 인식은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확증 편향을 강화한다. 외제차까지는 아니어도 고급 국산 세단 정도는 되는데 자꾸 중고차 취급한다고 탓할 일이 아니다. 운전 습관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본인은 물론 주변 참모들도 자동차 탔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살아남으려면 운전자가 바뀌어야 한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늘이 만든 결과라는 평범한 진리가 대문을 두드릴 것이다.

사설

풍력 공유화기금, 위법 소지 알면서도 묵살

이익공유제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화하는 것이 골격이다. 바람직한 제도지만 이익공유제의 핵심 재원인 공유화기금 조성 과정이 위법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법은 도지사에게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로 지난 2013년 풍력조례를 개정해 이익공유화 개념을 도입했다. 이어 2016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조성방식과 쓰임새를 규정했다. 그런데 제주도 의회로 풍력발전 조례 정비 방안을 연구한 제주대 산학협력단은 의외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익공유제 시행방식에 법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기부금을 내용으로 하는 이익공유는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법 논란의 핵심은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이다. 제주도는 고시로 풍력발전단지 응모 기업에게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내는 공유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용역진은 이 같은 기금 조성방식이 사실상 강제 기부로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은 모집주체가 기부금품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는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도가 이 같은 문제를 지난해 말 인지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공모를 진행하는 제주에너지공사에 전달해 공모 절차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이다. 위법 소지를 알면서도 묵살한 셈이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개정해 풍력자원 이익공유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법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열린마당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의 버팀목이 되다



양 경 선 제주시 친환경농업과

최근 농어촌을 둘러싼 경영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지원이다.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용자 수요는 당초 계획을 크게 웃돌았다. 제주시의 경우 1583건, 667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될 만큼

현장의 자금 수요가 매우 높았다. 이는 농어업 현장에서 안정적인 저리 정책자금의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특히 연 0.7% 수준의 낮은 수요자 금리와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다양한 용도의 지원은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농어업은 기상 여건과 시장 상황에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인 만큼 안정적인 금융 지원은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금융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용자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 조정된 것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농어업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농어촌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한다.

뉴스-in

“도서지역 공무원, 평등한 복지 누려야”

처우 개선 조례안 발의

○...도내 도서지역 공무원들의 근무 기피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여객선 운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 공무원은 물론 제주자치도지사가 임용권을 가진 ‘소방공무원’도 대상으로 명시. 현재 지원대상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근무자는 45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지홍 의원은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거주지나 근무지에 상관없이 평등한 후생복지를 누려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 위영석기자

서귀포시 미래전략팀 가동

○...서귀포시가 10일 시청 너른마당에서 젊은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시각을 시정 혁신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2026 미래전략팀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시책 발목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 특히 구성원의 8·9급 공직자가 전체의 100%(8급 4명, 9급 16명)를 차지하는 등 젊은 공직자들의 참신한 시각이 시정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김원철 서귀포시 부시장은 “젊은 공직자들의 유연한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민해나가는 과정이 서귀포시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적인 시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달라”고 당부. 백금기기자

토지 경매 급증, 투기 후유증 직시할 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제주지역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 626건 중 토지는 353건으로 56.4%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해에도 전체 경매 건수 7894건 중 토지가 49.9%(3938건)에 달했다. 특히 토지 경매 물건은 읍·면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침체의 결과라기보다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형성된 투기적 수요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토지는 한때 개발 기대감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 외지인들이 토지를 대거 사들였다. 문제는 실제 토지 이용 목적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기댄 가수요였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일 때는 이러한 투자 흐름이 걸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위축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대출을 끼고 토지를 매입한 이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매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기적 토지 거래의 후유증은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지역의 토지 가격을 왜곡시키고,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으로 거주민과 농업에 종사하려는 이들의 토지 접근성까지 떨어뜨린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침체는 반복될 수 있지만 투기의 후유증이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선 안 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토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때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공고
• 피상속인 : 망 최창호(1971. 05. 14.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무근성안길 14-5 (삼도이동)
상기자는 2025년 11월 20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3월 3일 제주지방법원 2026년단50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8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을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모자·문증모자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개장신고서 무료 작성 대행
장례지도사 강봉호 (진주강씨 제주도총회 이사) 010-5254-6661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장 의사 616-08-85402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령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제주주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작명☆택일☆사주☆운세 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명해 드립니다.
사주 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할상담사
1.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철학원 창업원(통변중심)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